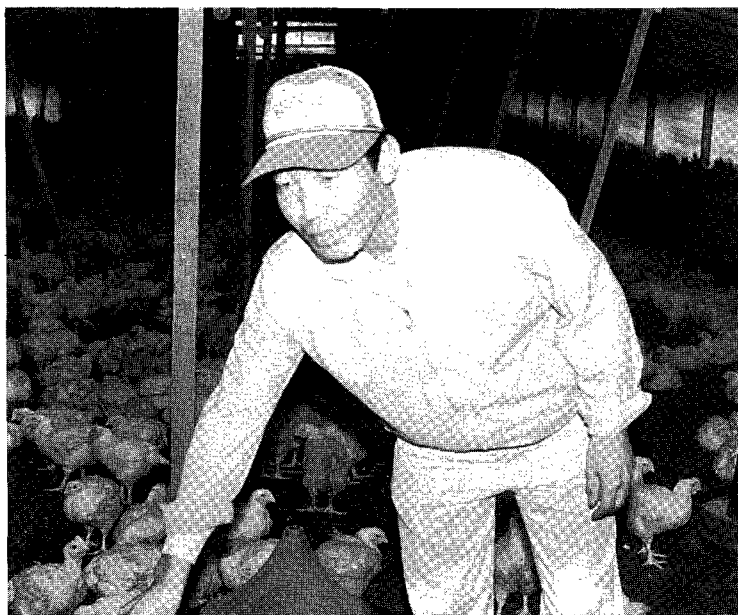


# 소비위축이 육계업 공황 불렀다

□ 정리/이영오 기자



▲ 배용돈(부자농장) 사장

**우** 리나라는 경제단위가 커질수록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지향적으로 나아갈수록 개방화에 큰 도전을 받아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육계업도 미절단 신선육이 개방되는 등 개방화에 따른 거센 도전을 받으며 경쟁력 확보의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이에따라 육계인들은 계유년초부터 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해를 관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92년도에 사육수수가 73,324천수로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 농가당 평균 390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절단 신선육이 개방된 올해를 양계업의 구조조정기라며 육계를 키우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여 현재 2만수 농장을 경영하는 배용돈 사장을 통하여 계유년의 육계 산업을 결산해 본다.

올 상반기 육계가격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종계·부화장들이 연쇄부도를 내는 등 육계농가들의 입추의욕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또 사정하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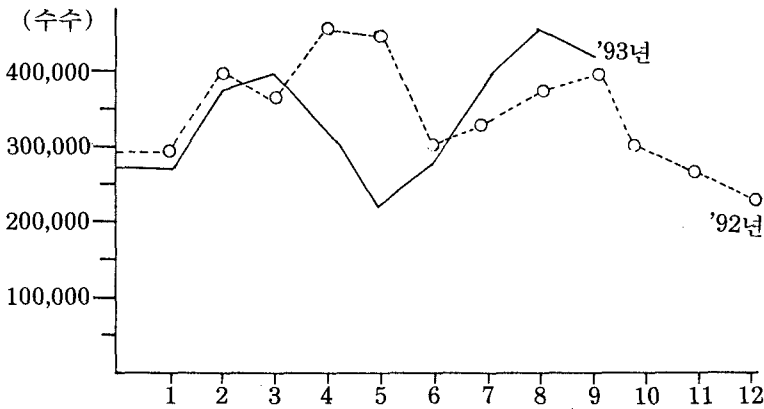


그림1. 육용 P.S 입식 현황

와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일대 육계공황으로 불릴만큼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그림1과 같이 전년 4, 5월에 육용종계 입식이 45만수를 넘어서는 과잉입식양상을 보였다. 이때부터 올 상반기의 불황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병아리 생산에 서서히 가담되는 상반기에 병아리 가격이 50~150원대로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

병아리 가격이 이렇듯 낮게 형성되자 육계농가들은 육계업은 투기적인 성향이 짙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많은 병아리를 입추시켜 육계가격이 폭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불황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 남들을 탓하는 상호간에 골깊은 불신이 차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완전개방화를 대비  
양계업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

배사장은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완전개방화를 대비, 양계업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반기의 불안정속에 나온 자구책이 1주간 병아리생산을 중지하는 결정이었는데 이 기간에 종계·부화업체가 폭넓게 동참해 불황일로에 있는 업계의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참여하였으나 일부 부화장에선 병아리 생산을 계속함으로써 아직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의식이 개선되지 못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6월 이후 닭고기 가격은 사상 초유의 강세를 띠기 시작하여 kg당 1,700원대에 판매되기도 하였으나 이나마 출할 닭이 없어 판매를 못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이는 원인불명의 질병, 그리고 장작숯불바베큐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감축운동을 전개한 양계업계의 노력도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병아리를 공급하는 종계 부화장이나 공급을 받는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교훈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육계가격이 8월까지 지속되자 병아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350~400원대의 가격이 6월, 7월, 8월 계속되었

표1 육계가격, 사료생산량 및 병아리 가격

월	육계가격(원/kg)		전기사료량(천톤)		병아리가격 (평균)
	'93	'92	'93	'92	
1	1,338	908	45.7	54.4	250~350
2	881	970	49.7	44.9	100~150
3	701	992	59.5	48.3	70~220
4	780	982	60.6	59.5	50~150
5	853	1,079	58.7	71.5	50~100
6	1,357	687	73.9	73.8	250~390
7	1,385	862	78.3	69.7	350~400
8	1,159	937	68.1	55.4	380~420
9	610	614	60.6	50.7	50~180
10	544	575	51.9	43.8	120~220
11		830		40.4	280~350
12		1,194		48.8	

으나 육계인들은 장기간의 호황 때문인지 고가의 병아리를 사들이기에 급급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 예로 지난 8월 육계전기사료량이 68,124톤으로 '92년대비 22.9%의 증가세를 보여 결국 9월, 10월내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500~700원대의 난황을 맞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업계 스스로 불황을 자초하는 모습이 돼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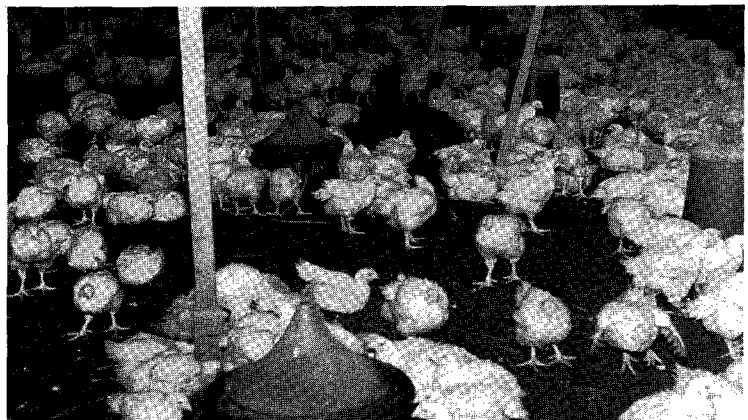
과잉 입추가 되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도 증가함을 나타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한탕주의를 생각하는 육계인들이 있어 입추만 생각하고 방역을 소홀히 함과 동시에 과잉입추로 인한 밀사로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

는 결과를 초래해 농가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육계인들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침체로 경영이 부실한 종계, 부화장이 부도를 내는 과정에서 종계관리자가 잘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전국

적으로 뉴캐슬, 전염성 후두기 관염, 감보로병 등의 질병이 발생해 육계농가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또 아직도 명확한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전기사료에서 후기사료로 전환할 때 설사를 하면서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해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은 1인당 5.2kg 정도로 이는 일본의 13.2kg, 미국의 36.6kg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88년을 전후하여 양념통닭이 개발되면서 소비에 일대 혁신을 가져와 닭고기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금년에 닭고기 소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작숯불바베큐다 유원지를 중심으로 등장해 계육 소비에 한몫을 했



음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육계인 또한 장작숯불바베큐로 인한 소비확대에 기대를 걸었는데 닭고기 소비측면에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양념통닭 이후 이렇다할 신제품 개발이 되지 못한 담보한 상태에서 신상품이 나왔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산농가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격의 난립, 그리고 맛의 균일도 무엇보다 위생적이지 못해 반쪽상품이 되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하는 배용돈 사장,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선 품질과 위생관리가 선결되어야 하며 다양한 요리법과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97년이면 완전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취약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장에서 400원대에 출하를 하든 1,000원대에 출하하든 소비자 계육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통의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 개선되지 않고 불합리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건비 상승, 열악한 계사상태 등을 미루어 볼때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육계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 닭고기 품질을 개선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소비홍보와 함께 철저한 위생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육계 생산비를 보더라도 우리는 998원인데 반해 미국은 566원, 태국이 569원인 것을 볼때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생산비절감이 시급한 편이다. 개방에 대비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생산농가는 자기여건에 맞는 규모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나감

과 동시에 병아리를 공동으로 구입해 초생추대를 낮춰 나가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종계나 부화장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고 배용돈 사장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6월말 육계 계열화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계열화 업체의 비중이 커져가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계열업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계열화가 될 경우, 병아리, 사료, 약품 사육, 가공, 유통에까지 관여하는 통합경영체제로 단일체제를 갖춘다면 생산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급조절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급조절에 반영시킴으로써 적절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닭고기 품질을 개선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소비홍보와 함께 철저한 위생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